

교육공동체 나다 주말강좌  
2020년 6월

# 휴먼러니저닝

참가안내

## [철학] 생각하는 사람이

★ 몸만 자라는 아이로 남지 않기 위해 열혈 초딩이 던지는 질문들

## [정치경제] 청소년, 다시 광장에 서다

★ 답답한 일상에 힘을 더해줄 정치경제학 입문

## [철학]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자유

★ 조금 더 자유롭기 위해서 우선 알아야 할 자유, 그리고 평등



교육공동체 나다 주말강좌  
“휴머니즘”에 참가하시는 방법

※ 후원회원 가입은 나다 홈페이지 <http://nada.jinbo.net> “후원하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1. 참가신청

참가신청 연락을 해 주세요

〈새로 참가하는 경우〉

전화 또는 나다 홈페이지 “주말강좌-휴머니즘” 게시판에서 신청 글 작성.

▶ 알려주실 것 : ①참가자이름 ②휴대전화 ③신청강좌 ④회원가입여부 ⑤입금자명

〈앞 과정과 연결해 계속 참가하는 경우〉

이전 과정에 이어 계속 참가하시는 분들께 새 과정 참가 여부를 먼저 여쭙고 신규 참가 접수를 시작합니다.

2. 후원회원 가입 선택

후원회원은 주말강좌(휴머니즘)와 방학특강 강좌후원금이 20% 할인됩니다.

▶ 후원회원 : 월 회비 1만 원 이상을 납부. 홈페이지 상단 “후원하기”에서 양식 작성.  
(※ 홈페이지에 글을 쓰기 위한 로그인 회원과는 별개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3. 강좌후원금 납부

[2020년 6월 휴머니즘] 강좌후원금

초등부 철학 20만원(10강), 중등부 정치경제 20만원(10강), 고등부 철학 10만원(5강)

▶ 회원은 80%만 납부

▶ 납부 계좌 : 국민은행 543037-01-005880 교육공동체나다

---

4. 그 밖에

★ 참고하실 사항

1. 강의는 주 1회, 2시간입니다.

2. 초·중등부는 8월 마지막 주(30일), 고등부는 7월 5일까지 강의 예정이며 초·중등부는 기간 중 각각 3주의 휴강이 있습니다.

★ 강좌가 열리는 곳

교육공동체 나다(마포구청역)

서울시 마포구 망원로 7길 44(망원2동 479-28) 3층

# 철학 초등

## 생각하는 자람이 (10강)

★ 자람이는 생각한다, 고로 자란다. 몸만 자라는 아이로 남지 않기 위해 열혈 초딩이 던지는 세상에 관한 질문들

|        |   |
|--------|---|
| 참가자    | 12~13세 초등부 청소년  |
| 개강     | <일요강좌> 6월 7일~8월 30일 오전 10시 30분                        |
| 오리엔테이션 | 강좌 첫 참가자에 한해서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첫날 수업이 시작하기 30분 전까지 와주세요! |

“너는 너무 생각이 많아” 12살 자람이가 주변 친구들에게서 종종 듣는 핀잔입니다. 매사 질문도 많고, 할 말도 많은 이 소녀는 반 친구들 사이에서는 별종으로 통합니다. 세상만사가 도대체 왜 이렇게 생겨먹은 것인지 사사건건 따지고 들이받는 이 열혈 소녀가 다른 친구들이 보기에는 영 이상해 보였던 거죠.

<생각하는 자람이>는 아이들의 생활 속에서 건져 올린 생생한 철학 이야기입니다. 자람이 또래의 초등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철학의 주제들을 접해볼 수 있도록 고민해서 쓴 소설을 만화로 다시 구성했어요.

아무리 만화라고 한들, 어른들에게도 어렵고 지겨운 철학을 과연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요? 철학이 어렵게만 여겨지는 것은 아이들이(어른들 역시!) 접해 온 ‘철학’이라는 것이 철학의 탈을 쓴 또 다른 암기, 혹은 삶과 완전히 동떨어진 죽어있는 고민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철학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각하고 판단하고 반성하는 능력이 있다면 누구라도, 너무나 당연하게 ‘철학’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과 연관된 현실적인 것으로 고민할 수 있을 때, 추상적인 것이 쉽고 재미있게 설명될 때 아이들은 개념에 흥미롭게 접근합니다. 아이들을 이야기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여러 장치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암기로서의 혹은 자신의 삶과 동떨어진 철학이 아닌 자신의 삶 속에서의 철학을 고민할 수 있게 됩니다.

자람이가 살면서 보고 듣고 겪는 일들에 속에서 건져 올린 알쏭달쏭한 질문들은 대한민국의 다른 평범한 초등학생들 역시 충분히 공감할 만한 흔한 경험담들 가운데 있습니다. 키와 몸무게는 밥만 먹어도 알아서 자라지만, 마음의 키는 '나를 둘러싼 세상은 어떤 곳인가?'를 직접 맞부딪쳐 묻고, 답을 내려가는 과정에서만 자라날 수 있습니다. 몸만 자라는 아이로 남지 않기 위한 열혈 초딩의 머리 아픈 일상 속으로 함께 따라가 보실래요?

.....

### 1강\_ 오리엔테이션 : 철학이 뭐데?

생각하는 자람이는 초등학생들을 위해 만든 철학 강좌입니다. 철학이라니~! 너무 딱딱하고 어려운 주제 아니냐고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본격적으로 자람이를 읽기 전에 우리가 앞으로 하려는 수업의 의미에 대해 나눠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 2강\_ 나를 잃어버린 날 : 내가 알고 있는 나, 그게 정말 나일까?

어느 날 학교 갔다 집에 돌아오니 가족 중에 아무도 자람이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나야, 나! ‘자람이’라고!” 아빠는 황당하단 표정으로 말합니다. “자람이란 이름이 너 하나뿐이겠니?” 이쯤 되면 자람이조차 스스로가 의심스러운 걸요?

생각하는 자람이 첫 번째 이야기는 ‘나’, 곧 주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 사회의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면 자기 삶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자각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외적인 조건(부모나 학교의 강압) 때문에 오히려 그렇지 못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를 자기화하는 실천으로서의 사고, 그 주인으로서의 주체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 3강\_ 옛 친구 새 친구 : 기억나지 않는 그 녀석, 옛 친구일까 새 친구일까?

옛날에 시골 외가댁에 살았던 자람이. 7년 만에 그곳에 다시 갔더니, 글썽 참 보는 시커먼 녀석이 반갑다고 영기지 뭐예요. 옛날에 나와 목욕까지 했던 사이라나? 그런데 나 빼고 다 그 사실을 인정하지 뭐예요!! 어머머, 웬일이니!!

두 번째 시간에서 아이들은 “기억나지 않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알고 있다면 그건 내가 사는 시간에 속해 있는 것일까? 아닐까?”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토론의 과정을 통해 정체성과 변화에 대한 이해에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 4강\_ 진실은 어느 곳에 : 왜 서로의 진실이 어긋나게 되는 걸까?

애는 재를 좋아하고, 재는 개를 좋아하고, 개는 또 애를 좋아한다나? 근데 오해가 생겨 대판 싸움이 벌어졌네요. 가만, 왜 모두가 말하는 싸움의 이유가 다른 거죠? 아아, 사랑의 진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자람이네 반 두 친구의 추리소설 뺨칠 정도로 엇갈리고 꼬여버린 연애 문제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두의 진술을 종합하던 자람이는 결국에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를 상황에 빠져버리고 말죠. 이 시간은 '진실과 거짓말'이라는 소재를 통해 객관과 주관에 대한 이해, 진실의 조건에 대한 이해에 다가서기 위해 짜였습니다.

## 5강\_ 좋은 아이 착한 아이 : 착하게 살 것인가 독하게 살 것인가?

세희는 엄청 착한 아이인데 인기가 없어요. 연주는 엄청 이기적인데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짜증나는 상황을 겪었지 뭐예요! 도대체 왜 그런 거죠? 착하게 살 것인가, 독하게 살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어릴 때 보통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때리지 마라.”, “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좋은 사람이 되라, 착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 독하게 남에게 뒤지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 것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은 아이들이 겪은 이 혼란을 통해서 삶을 대하는 자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시간입니다.

## 6강\_ 예정이의 선택 : 우리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걸까?

예정이가 학원 뽕뽕이가 너무 힘들다면서 자람이네 집으로 가출을 해왔어요~!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 하는지 묻는 예정이와 이게 다 너의 미래를 위해서라는 예정이 엄마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섭니다.

초, 중, 고, 대학, 직장생활, 결혼생활... 점쟁이가 아니더라도 한 초등학생의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다 맞힐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왜 다들 비슷비슷한 삶을 살게 되는 걸까요? 우리의 삶을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회 구조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 7강\_ 원래부터 나쁜 아이? : 문제아는 태어나는가, 만들어지는가?

승욱이는 자람이 학교에서 소문난 문제입니다. 자기보다 힘이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고 때리고 다니는 통에 아이들 사이에서도 원성이 자자해요~! 우연히 승욱이의 도움을 받게 된 자람이는 무서운 아빠와 함께 사는 승욱이의 속사정을 듣고 난 뒤 고민에 빠집니다. 사람은 타고나길 선하거나 악한 걸까요, 살다보니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일 뿐일까요? 사회환경과 개인이 맺는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 8강\_ 진짜 세상, 가짜 세상 : 게임 속의 나는 어디에 살고 있을까?

사람이는 게임에 죽고 못 사는 남자애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고수 될 때까지 레벨 올리고, 아이템 모으고,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람? 어차피 실제로는 다 쓸모도 없는 것들인데! 수업이 모두 끝나자마자, 오늘도 우리 반 남자애들은 피시방을 향해 달려갑니다. 현실보다 더 끝내주는 가짜 세상을 향해서!

청소년들이 빠져 사는 드라마, 영화, 만화, 게임 등의 창작물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가상 세계입니다. 가짜 세상이라고 해서 무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실제로 희귀한 게임 아이템은 게임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이버 머니가 아닌 진짜 돈으로 제법 비싼 값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가상은 모니터 안과 바깥을 넘나들며 현실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가상의 체계들이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현실과 어떤 연관을 맺고 나를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시간입니다.

## 9강\_ 진지한 얘기할 친구가 필요해 : 세상은 너무 이상해! 나만 그래?

매사에 불만도 많고, 질문도 많은 자람이를 주변 친구들은 인생 참 피곤하게 산다며 별종이라 생각해요. 자람이 자람이대로 내 고민을 같이 나눌 친구가 없다는 것이 외롭고 답답합니다. 사실 자람이는 그렇게 특별하고 잘난 아이는 아니에요. 여러분은 세상이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해본 적 있나요? 내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잘못된 일들에 맘속으로 불만을 가져본 적이 있지는 않나요? 자람이는 멀리에 있지 않아요. 아홉 번째 수업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자람이를 만나봅시다.

## 10강\_ 행복과 불행 사이 :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여러분은 지금의 자신의 삶에 만족하시나요?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요? 행복한 삶과 불행한 삶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짜로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삶이 좋은 삶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힘을 기르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수업에서는 사회적으로 정해진 행복과 불행의 사이를 가로질러 어떤 세상에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봅니다.■

# 정치경제 중등

## 청소년, 다시 광장에 서다 (10강)

★ 답답한 일상에 힘을 더해줄 정체경제학 입문

|        |   |
|--------|---|
| 참가자    | 14~16세 중등부 청소년  |
| 개강     | <일요강좌> 6월 7일~8월 30일 오후 1시                             |
| 오리엔테이션 | 강좌 첫 참가자에 한해서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첫날 수업이 시작하기 30분 전까지 와주세요! |

작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만 18세 청소년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청소년에게 민주주의는 더욱 당연한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지만 여기에 만족하기에는 여전히 청소년의 현실은 그리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학교는 민주주의의 내용만을 암기시킬 뿐 어떻게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을지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민주적인 시민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지만, 어른들은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청소년의 권리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런 인식은 청소년의 첫 선거 참여가 이루어진 뒤에도 끊이지 않는 수많은 우려의 목소리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그들은 알까요. 이번 선거권 연령 인하가 다른 나라의 예에 비추어보면 오히려 매우 낮은 감이 있다는 사실요.

민주주의는 투표권 같은 형식이나 제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란 고정되고 암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의심하고 토론하며 만들어나가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민주주의는 법과 제도를 넘어 나와 누군가의 더 넓게는 이 사회에서 맺고 있는 모든 관계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회가 제아무리 제도적인 장치를 갖추고 있다 한들, 일상의 관계가 민주적이지 않다면 청소년의 민주주의 역시 지금처럼 한계가 명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선거권 연령 하향이 고민의 끝이 아닌 시작일 수밖에 없는, 더욱 청소년의 정치적 힘과 권리에 대해 소리 높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번 나다의 인문학 강좌는 청소년의 민주적인 삶과 권리에 대해 더 나아가 그 권리를 자신에게 유리한 정치적 선택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정치경제 이론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가 단순한 외침을 넘어 우리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구체화하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 part I - 민주주의 학교 : 민주주의는 ( )이다.

### 1강\_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시청에서 광화문에서 울려 퍼진 노래 가사로 더 익숙할 수도 있는 이 문장은 사실 대한민국의 헌법 1조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민주공화국이라는 건 대체 무엇일까요? 민주란 무엇이고 공화국은 무엇일까요? 그 의미가 뭐길래 왕이나 대통령에게나 있을 법한 권력이라는 무시무시한 힘이 우리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장담하는 걸까요?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한 번 쯤 이런 궁금증을 떠올렸다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민주공화국의 시민입니다.

### 2강\_ 5천만 가지의 주장이 나오면 결정은 언제 해? : 반장은 필요하다 vs 불필요하다

5천만의 시민이 모두 모여 어떤 일을 결정할 수 없기에 우리는 대표를 뽑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국회의원이거나 대통령 선거에 나온 후보들이 우리를 위해 일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번지르르한 공약이 실현될 거라는 기대도 크지 않습니다. 어차피 저들의 목적은 국민의 행복이 아닐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말하는 선거가 결국 거짓말쟁이를 뽑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왜 투표를 해야 하는 걸까요?

### 3강\_ 다수의 정의롭지 못한 결정도 받아들여야 할까? : 다수결은 민주적인가 vs 아닌가

흔히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반대말로 독재를 떠올립니다. 수많은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오로지 권력자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것을 민주주의는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절대적인 다수가 히틀러 같은 독재자를 지도자로 선택했다면 그것도 민주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실제 우리는 촛불을 들기 전 지도자를 잘못 선택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가 민주적이라고 믿고 있는 제도에 의문을 던져볼 만도 합니다. 민주주의는 정말로 무지한 다수의 어리석은 선택도 감수해야 하는 걸까요?



## 4강\_ 청소년도 투표할 자격이 있을까? : 중학생도 투표할 수 있다 vs 없다

고대 그리스에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시민이었지만, 그 시민에는 노예와 여성이 빠져있었습니다. 근대로 넘어온 이후에도 부유층 백인 남성에게만 주어졌던 투표권은 투쟁의 과정을 통해 노동자 백인 남성에게, 흑인 남성에게, 여성에게로 넓어지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민이 투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21세기에 아직도 투표권을 얻지 못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 당신입니다. 다행히(?) 2020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투표권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며 일부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언젠가 참정권에 대한 나이 제한이 사라져 버린다면, 8살의 대통령 후보가 등장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초등학생에게 이 나라의 운명을 걸 수 있을 것 같나요?

## 5강\_ 너와 나의 민주주의 : 우리의 관계는 얼마나 민주적일까

민주주의는 광범위한 정치적 개념이지만 그 자체가 일상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아무리 거창하고 화려한 이론으로 떠든다 한들 그것이 우리의 관계 안에 녹아 들어가 있지 않다면 우리는 점점 민주주의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가까운 곳부터 따져볼까요? 당신과 나, 여기 모인 우리의 관계는,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관계는 얼마나 민주적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맺는 관계들은 어떻게 해야 더 민주적일 수 있을까요.

## PART II - 보이지 않는 손, 10대의 삶을 흔들다

### 6강\_ 아무도 원하지 않은 자유 : 자유와 평등의 관계

우리는 학교에서 자유와 평등을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기본원리로 배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어느 한쪽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다른 한쪽이 훼손될 수 있는 일종의 대립적인 관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 온 혹은 생각해 온 이 비교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리고 어떤 힘이 둘의 관계를 대립적인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고 있다면 어떨까요. 더 나아가 그것이 특정 누군가의 이익을 위한 거짓말이라면 또 어떨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둘의 관계를 재정립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 7강\_ 내 행복의 대가는 너의 불행? : 시장원리에 대한 이해

“두 피자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게의 주인은 상대방보다 더 많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 자유롭게 하지만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상대방보다 더 많은 매출을 올리고자 하는 두 가게주인의 이기심은 서로의 매출을 올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햄버거를 더 싸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정말 간단한 이야기죠? 하지만 이 속에는 이 사회 경제 논리의 핵심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 피자 가게 주인과 소비자는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만약 아니라면 이 이야기는 어떻게 다시 쓰여야 할까요.

## 8강\_ 내 노동의 손익계산서 : 노동의 가치는 어떻게 매겨지는가

‘일한 만큼 가치를 인정받고 대가를 받는 것.’ 모든 노동자의 꿈입니다. 그런데 나의 노동의 가치는 누가 어떻게 매기는 것일까요? 반대로 아직 잘 모르겠지만 분명 누군가 정해놓았을 규칙이 정말 나의 노동의 가치를 잘 대변해준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시장원리에 따라 상품의 가격이 매겨지듯 노동의 가치를 매기는 어떤 기준이 우리 사회에는 존재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그것이 학벌, 외모, 토익점수 같은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노동의 가치가 매겨지는 진짜 기준은 훨씬 깊숙한 곳에 존재합니다. 내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그 기준을 알아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 9강\_ 보이지 않는 곳에도 길은 있다 : 사적 소유와 공동체적 소유

지금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밥을 먹고, 더 나은 밥그릇을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과 그들이 사는 세상을 설명해준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뒤집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나의 것, 너의 것을 나누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겠다고 싸우는 대신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보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은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나은 길을 제시할지도 모릅니다.

## 10강\_ 청소년주의 선언 : 정치적 힘을 가진 존재가 된다는 것

청소년은 언제나 정치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입장을 사회에 반영

시키지 못했고 심지어 이런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끊임없이 길들어 오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이런 반쪽짜리 민주주의는 버리자고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당당히 우리의 요구와 권리를 주장해 보자고요!■

# 철학 고등

##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자유 (5강)

★ 조금 더 자유롭기 위해서 우선 알아야 할 자유, 그리고 평등

|        |   |
|--------|---|
| 참가자    | 17~19세 고등부 청소년  |
| 개강     | <일요강좌> 6월 7일~7월 5일 오후 3시 30분                          |
| 오리엔테이션 | 강좌 첫 참가자에 한해서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첫날 수업이 시작하기 30분 전까지 와주세요! |

한국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은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일 것만 같습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진 상품처럼 성적으로만 품질을 결정받는 그런 세상에서 자유는 오히려 불량품의 조건인 것처럼 보입니다. ‘나중에 더 자유롭게 살려면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자유보다 먼저 학생으로서 책임(공부)을 다해라.’. 이런 충고들 속에 자유는 청소년의 인생에서 미뤄지고 지워집니다. 심지어 어떤 어른은 맘껏 공부할 수 있는 그때가 가장 자유로운 시기라고 말합니다.

정말 자유라는 가치는 시험 성적의 가치보다 못한 것일까요? 성적을 올리기 위해 ‘자유’롭게 경쟁하는 그 자유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자유일까요?

자유롭기 위해서, 자유를 향해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유란 도대체 무엇인가요? 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살면서 자유롭다고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진정 자유로 우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자유에 대해 질문을 할 자유도 없이 살아온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

### 1강\_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가?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말,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놀이 말고 공부해라”는 잔소리의 이면에도 아마 이런 논리가 숨어있을 법하지요. 혹시 이렇게 되받아치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리는 걸 느껴본 적 있나요? “자유가 그냥 자유지 무슨 책임이 따라? 책임이 따르면 그게 자유야?” 몰라서, 두려워서, 한 번도 제대로 따져보지 못한 이 논리를 제대로 따져 묻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향해 첫걸음을 떼어봅시다.

## 2강\_ 죄와 벌 : 근대철학의 자유 논쟁

당신은 운명을 믿나요? 만약 운명이 정해져 있다면 당신의 바람이나 선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의 삶이 나의 의지가 아니라 신의 섭리나 거부할 수 없는 운명에 의해 결정된다면 인간에게 자유라는 게 가능하거나 할까요? 신의 권능에서 벗어나 인간과 인간의 이성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고 싶었던 근대의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유가 두려워 다시 족쇄를 채우기까지 그들은 어떤 고뇌를 했었던 걸까요?

## 3강\_ 모두의 이기심을 자유롭게 하라 : 자유주의의 함정

사람들은 자유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간편하게 생각하곤 합니다. 누군가가 정말 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면 그 주변 사람들은 꽤 피곤하지 않을까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규칙, 말하자면 법을 만들어 제 마음대로 하는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데에 대부분의 사람은 동의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대로 뒤도 관찮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제 마음대로 하고 살도록 허용해도 결국은 아무도 제 마음대로 못할 것이라 자신합니다. 현명한 이기주의자들이 고안한 자유 지상주의의 세상은 당신에게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 4강\_ 천국에는 자유가 없다 : 자유와 평등의 딜레마

자유는 평등을 방해하고 평등은 자유를 제한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과서에도 자유와 평등은 반비례 관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철 지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대립은 흔히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대립한 것이라고 흔히들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유와 평등, 둘 중 하나의 가치를 포기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 5강\_ 자유로부터의 도피 : 자유와 복종의 갈림길에서

평생 우리에게 간혀 살아서 문이 열려있어도 밖을 나서지 못하는 짐승처럼 복종에 길들어 자유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대부분 인간은 어떤 형태로든 지배를 받아들이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송곳처럼 빠져나온 자유를 향한 열망은 이제 민주주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감옥이 더 자유롭다는 죄수의 딜레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당신은 정들었던 감옥을 떠나 낯설고 두려운 바깥세상으로 한 발을 내디딜 준비가 되었나요?■

■교육공동체 나다 2020년 6월 휴머니즘 소개 마침■